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마음 따뜻한 기업 두리정보통신

증권금융솔루션 개발 전문 벤처기업 두리정보통신(대표 김현섭)의 잇따른 기부운동이 잔잔한 감동을 불러오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태풍피해민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벌였다. 전 임직원이 가까이 참여하여 모은 기금의 일부는 수해피해를 직접 당한 직원 두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수재의연금으로 보냈다.

두리정보통신은 지난해 가뭄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이를 돕기 위한 기금모금운동도 펼쳤다. 당시에도 전 임직원이 참여하고, 회사는 기금의 1배수를 보태는 성의를 보였다. 더불어 이 회사는 올해 3월 협회가 우리나라 직장모금운동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에도 참여했다. 당시 김대표는 자사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임직원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기금모금운동을 하면서 단순히 모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한다.

이를테면 홈페이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갖가지 사례를 올려놓고 그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여 참여의 의미를 배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사내결속력의 강도를 꼽는다. 즉, 인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리정보통신의 미래는 밝다. 마음이 따뜻한 임직원들이 많은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두리정보통신 임직원들이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에 참가한 후 기념촬영

• 알림 •

협회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장모금운동 '한사랑벤처릴레이운동' 을 전개하고 있다. 관심있는 벤처기업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회소식

전북지역 협회

전주첨단벤처단지 개소

전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덕진구 팔복동 구 기능대학부지에 조성하기 시작한 전주첨단벤처단지에 전북대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와 12개 기기업체를 입주시켜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연말까지 입주업체를 20개로 늘리는 한편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300억원을 투자해 3만평의 부지확대와 100여개 벤처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 자동차-생물벤처 특화 육성

이기호 청와대 경제특보는 전북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올 예산배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아미티에 김정식 대표로부터 생물벤처산업을 위해 필요한 임상실험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건의를 받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특보는 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 등을 더욱 확충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적극 검토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경북 지역 협회

ASPA2002회의기념 벤처기업특별전

본 특별전은 아시아지역 벤처리더들에게 한국테크노파크 사업의 성과와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장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02. 11. 06 ~ 11. 08

장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DAEGU) 1층

전시규모 : 10개국, 130개 업체 180개 부스

주최 :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전국테크노파크협의회, 매일신문

주관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이업종교류연합회, 벤처기업대구·경북지역협회